

## 태극전사들 오늘 세네갈과 평가전

# 박지성 출전 가능성 부상 김남일 못뚫는다

“김남일은 이번 주까지 상태를 지켜보겠다. 나머지 22명은 건강하다. 박지성은 상태를 보고 선발 출전 여부를 고려하겠다”

딕 아드보카트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은 세네갈과 평가전을 앞두고 22일 서대문구 흥은동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가벼운 부상을 당한 김남일(수원)을 세네갈전에 투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남일은 21일 훈련 도중 허리 통증을 호소해 휴식을 취했다.

김남일은 “조금씩 아팠던 부위인 데 심한 건 아니다. 2~3일 휴식이 필요하다. 세네갈전에 뛰기는 힘들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드보카트 감독은 이어 재발중인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세네갈전 출전 여부에 대해 “상태가 많이 호전돼 팀 훈련에 합류시켰다. 상태를 꾸준히 지켜보고 있다. 선발 출전 여부를 계속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드보카트 감독은 이어 ‘평가전 상대인 세네갈은 주전들이 많이 빠지고 감독이 최근 교체된 부실한 상대가 아니냐’는 질문에 “중요한 건 상대 팀이 어떤 상태인지 보다 우리가 어떤 플레이를 하느냐”라고 답했다. 그는 “세네갈이 정념 도움이 되지 않는 상



대라면 그 다음 날 취재진과 한 판 붙어보겠다”고 농담을 건네며 ‘평가전 부실 우려’를 일축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한국팀 장점은 순간 폭발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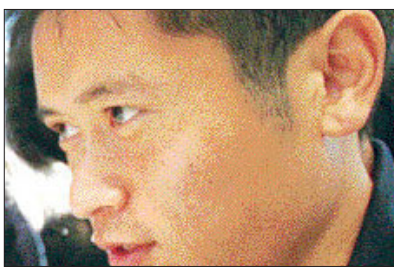
### 이영표 기자회견

‘초종이’ 이영표(29·토트넘)가 ‘순간적인 폭발력’을 2006 독일월드컵에 나가는 한국 선수단의 ‘키워드’로 꼽았다.

이영표는 22일 서대문구 흥은동 그랜드 힐튼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기 전반적인 멘탈은 유럽 선수들이 우리 나라 선수들보다 낫지만 한 순간의 폭발력은 한국 선수들을 따라올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대표팀 소집 때 “가장 한국적인 게 상대를 꺾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던 이영표는 이날 “한국적인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한국만이 할 수 있는 폭발력을 경기에서 만들어내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한국이 객관적인 전력에서 뒤처지는 팀과 맞붙더라도 한 순간에 힘을 몰



아진다면 승리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었다.

이영표는 “한국 축구 역사를 통틀어 볼 때 가장 좋은 성적을 냈을 때가 2002년 한일 월드컵이었다”라고 전제하며 “그때 했던 적극적인 플레이, 효과적인 압박, 적절한 체력 분배, 열정적인 경기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영표는 “최근 감독이 ‘심판의 휘슬 소리가 날 때까지 적극적으로 하라’는 주문을 많이 한다”며 그라운드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뜻을 내비쳤다.

## “아드보 감독 넓고 크게 본다”

### 이천수 기자회견

“히딩크호가 좀 더 세밀한 쪽이라면 아드보카트호는 더 넓고 크게 본다”

이천수(24·울산 현대)가 거스 히딩크 전 감독과 딕 아드보카트 현 감독 체제의 차이점을 설명해 관심을 끌었다.

이천수는 22일 오전 서대문구 흥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진행된 태극전사 단체 인터뷰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건 두 감독이 비슷하다. 하지만 히딩크 감독이 먼저 흥분부터 하는 스타일이라면 아드보카트 감독은 지적할 건 한번 시도 못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느긋한 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밀한 면에서는 히딩크 감독이 더 낫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아드보카트 감독은 그림을 좀 더 넓고 크게 보는 쪽”이라고 비교했다.

이천수는 이어 2002년 한일월드컵 당



시를 떠올리며 “그 때는 정말 멍~한 기분이었다”고 했다.

관중석에서 팬들이 외치는 함성도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 어린 시절 아무 것도 모른 채 그냥 한바탕 놀았다.

이천수는 요즘 박주영(서울), 이호(울산) 등 후배들에게 “너희들이 평가전과 전지훈련은 참 잘 해왔다. 하지만 본선에 가면 다르다. 엄청난 중앙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고 얘기해준다고 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독일월드컵 빛낼 非유럽 선수 ‘빅5’

美 뉴스위크지 선정 박지성(한국) 호나우디뉴(브라질) 리켈메(아르헨티나) 도노번(미국) 드로그바(코트디부아르)

아드보카트호의 키 플레이어 박지성(25·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 2006 독일월드컵을 빛낼 5명(非) 유럽 선수 다섯 명에 뽑혔다. 미국 유력 주간지 ‘뉴스위크’는 오는 29일(현지시간) 발매될 국제판에서 독일월드컵에서 맹활약을 펼칠 비·유럽 출신 선수 5명 가운데 박지성을 선정했다. 박지성은 2년 연속 국제축구연맹(FIFA) 올해의 선수로 뽑힌 브라질의 호나우디뉴(FC바르셀로나)를 비롯한 아르헨티나의 후안 리켈메(비아 레알), 미국의 랜던 도노번(LA 갤럭시), 코트디부아르의 디디에 드로그바(첼시) 등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뉴스위크는 박지성에 대해 “거스 히딩크 감독은 자신이 이끈 한국 대표팀이 2002 한·일 월드컵에서 4강에 오른 후 스타 박지성을 데리고 네덜란드 PSV에인트호벤으로 돌아갔다”고 전하며 “박지성은 다재다능함과 근성, 비장한 체력을 가졌고, 많은 팀들이 몹시 탐을 냈다”고 극찬했다. 이어 “지난 시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입단,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가 된 박지성은 소속팀 팬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면서 “팬들은 (강철 체력의) 박지성을 ‘3개의 폐를 지닌(Three-Lung) 선수’라고 부른다”고 밝혔다. 뉴스위크는 “만약 한국이 이번 월드컵에서 지난 2002년의 성공을 재현하길 바란다면 박지성이 그가 가진 것을 모두 쏟아부어야만 한다”고 전했다.

## “조재진·안정환 독일서 일낸다”

태극전사들이 뽑은 월드컵 주역

‘안정환, 조재진, 박지성, 이천수...’ 2006 독일 월드컵을 위해 함께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23명의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은 이번 월드컵에서 가장 큰 일을 낼 것 같은 동료로 누구를 꼽고 있을까? 대부분은 골 찬스가 많은 공격진에게 두터운 믿음이 있었다. 이천수(울산)와 정경호(광주)는 22일 서대문구 흥은동 그랜드 힐튼호텔에서 진행된 축구대표팀 기자회견에서 최전방 원톱 조재진(시미즈)을 ‘아드보카트호의 해결사’로 지목했다. 정경호는 “일본 리그에서도 골을 많이 넣었고 특히 제공권 다룸에 능하다”고 조재진의 장점을 설명했다. 설기현(울버햄프턴)은 2002 한일월드컵에서도 두 골이나 몰아 넣은 ‘테리우스’ 안정환(튀스부르크)을 가장 주목해야 할 선수로 뽑았다. 전날 오후 훈련을 마친 뒤 후배 이호로부터 “지성이 영이 잘 해야 우리가 16강에 간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며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박지성은 안정환과 조재진 두 명이 독일 월드컵을 빛내 줄 것으로 전망했다. “진공정수기” 김남일(수원)은 주저없이 이천수를 내세웠다. 그는 “23명 가운데 천수만큼 특점력을 가진 선수가 없다. 천수가 공을 가지면 상대는 긴장한다. 프리킥도 50% 이상은 성공시킨다. 2002년보다 많이 성장했다”고 이천수를 찬찬했다. 이에 대해 이천수는 “좋은 선배들이 믿어 주신다니 고마울 따름”이라며 “일을 내보려고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다. 공격수는 골로써 이야기하고 싶다. 독일 월드컵을 세계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 “박지성·이영표 등 유럽과 선배들에게 한 수 배웠습니다”

“유럽축구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배들에게 훈련 기간 많이 배웠습니다”

신인 태극전사들이 2002년 한일월드컵 4강 주역인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과 이영표(토트넘) 등 유럽 빅리그 선배들에게 한 수 배웠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축구 천재’ 박주영(FC 서울)은 22일 서대문구 흥은동 그랜드 힐튼호텔에서 축구대표팀 단체 기자회견을 갖고 “유럽과 선배들로부터 가장 중요한 자신감을 배웠다. 또 선배들과 연습경기를 통해 실전 감각도 익혔다”고 말했다.

박주영은 “선배들은 자신감에서 우러나오는 여유를 배

### 신인 태극전사들 고마움 표시

#### “한 단계 높은 수준에 놀라워”

탕으로 경기 도중 한 가지 생각할 것을 두 세 가지로 생각했으며 실력도 한 단계 위였다”고 칭찬했다.

소집훈련 도중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신인 김두현(성남)도 유럽파들의 정신력과 한 단계 높은 실력에 놀라기는 마찬가지.

김두현은 “유럽에서 뛰고 있는 선배들의 마인드는 나

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것 같다”며 “강한 자신감을 가져서 인지 볼 컨트롤도 좋고 상대 수비를 만나도 전혀 위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소집 훈련에 대한 성과를 묻자 “자신감도 키우고 컨디션도 최고로 끌어올렸다”며 “지성이 형과 중앙미드필더로 경장을 받아오는 만큼 최대한 차이가 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동진(FC 서울)도 “영표형 등 유럽과 선배들의 자신감과 여유, 전술적인 면에서 후배들을 이끌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다”고 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